



WBC를 빛낸 KIA 윤석민·이용규 인터뷰

“팀 V10 달성 후 해외진출 고려” “일에 진 게 너무 분해 메달 안 걸어”

■ 윤석민

-28일 팀에 합류하자마자 시범경기에 등판했는데 몸은 괜찮나?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돼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어제 등판은 예정된 거였고, 70개 투구를 목표로 나왔는데 경기 내용이 괜찮아서 47개를 던지고 내려왔다. 베네수엘라와 준결승 이후 오랫동안 마운드에 서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

-대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원래부터 1라운드 세 번째 선발로 예정됐었다. 일본과 맞붙기 바라면서 등판 준비를 했는데 중국이 상대가 돼서 그게 가장 아쉽다.

-대회에 가기 전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일본을 가장 꺾고 싶었다. 선발로 등판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나와 성공적인 피칭을 했고, 일본도 우리와의 승부 때 고전했던 만큼 이번 대회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전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을 때다. 4강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결승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의 등판이라 더 기억에 남는다.

-그때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는데.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물론 기분은 좋았다.

-일본전 결승 이범호의 동점타 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게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인터뷰도 잘 못하고, 경기중에도 큰 액션 없이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막아웃에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외국 언론이나 스카우트들의 호평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외국에 진출할 것 같고 물어왔다. 그런데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나가겠다고 하면 KIA에 미안한 기분이 들고, 선수입장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진출은 팀의 우승을 이끈 뒤에야 생각해볼 것이다.

-대표팀 생활은 어땠나.

▲전세기도 타보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었다. 한식도 매일 속수로 공수되어 와서 음식 같은 것에서도 불편함이 없었다. 김광현(SK), 류현진(한화) 등 친한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해서 즐거웠다. 비슷한 연배의 최정(SK), 임태훈(두산)과도 이번에 많이 친해졌다.

-3년 전 WBC를 보면서 자신이 그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대표팀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그런데 실제로 도쿄돔, 롯데파크, 다저스타디움 같은 환상적인 구장에서 야구를 했다. 영광이다. 내년 아시안게임 등 대표팀의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KIA 타이거즈의 투-타의 핵 윤석민(사진 왼쪽)과 이용규가 제 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팀의 준우승을 이끌며 '월드스타'로 발돋움했다. 27일 저녁 팀에 합류한 윤석민은 28일 LG 트윈스와 시범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40년 동안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고, 29일 대타로 첫 출전한 이용규는 2타수 2안타로 맹활약했다. 팀 4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두 스타를 시범경기 마지막 날인 29일 잠실 구장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하는데.

▲대표팀 생활도 즐겁기는 했지만, 팀 동료들 모두 너무 그리웠다. 올해는 꼭 제 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대회 중 부상까지 입었는데 컨디션은 괜찮나.

▲시차 적응이 안돼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손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테이핑도 하는 등 고전하고 있지만 개막에 맞춰 정상 컨디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이용규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를 하는 등 WBC 최고 인기스타가 됐는데.

▲대회 기간에도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국내 상황을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 열광은 몰랐다. 대회 기간 중 두 번이나 다쳤더니 팬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

-베이징 올림픽 때도 야구 열풍이 대단했는데 WBC와 비교해보면 어때나.

▲WBC가 야구만 다루는 야구 최고의 대회라서 그런지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다 출전했고,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낀다. 야구는 틀이 까다로운 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야구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 어제도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에서 야구 하는 아이들을 봤는데 기분이 좋았다.

-'헬멧사건'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헬멧이 깨진 줄도 몰랐다.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아웃이 됐고 수비를 하던 나가자마자 환호성도 지르고 기분이 안 좋아서 바닥에 던졌는데 두 쪽이 났다. 헬멧을 가지고 있는 KBO가 정식으로 의견을 물어오지는 않았지만 괜찮다면 의미가 있는 만큼 내가 소장하고 싶다. -고의적으로 사구에 맞기도 했는데.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불편한 타자일 수 밖에 없다. 키가 작으니까 타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으니 스트라이크 잡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 타석에 바짝 서서 승부를 하는 만큼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대회 가기 전 일본과 맞붙어 이기고 싶다고 했는데.

▲예선에서 다 지더라도 결승에서 이겨야 했다. 분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해서 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던 것이다. 언젠가 야구열풍을 꼭 풀겠다.

-대표팀 합류 전 컨디션이 올라놓지 않았나? 대회 초반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타격감도 안 좋아서 고전했다. 초반 주전으로 뛰지 못했는데 대표팀에는 각 팀의 최고 선수들만 모여 있는 만큼 벤치에 앉아있을 때 심정은 복잡하다.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뛰는 선수들이지만 개인적인 욕심과 경쟁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타율이 저조했던 게 가장 아쉽다. 초반에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나중에는 손 부상 때문에 타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보람됐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대회 2라운드 승자전에서 일본 선발 다르빗슈에게 도루를 뺏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타이밍 봐서 뛰어야지 생각했었는데 초구 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2루로 뛰었다. 결승타를 때릴 때보다도 이렇게 상대의 흐름을 뺏을 때 더 희열을 느낀다.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들린 샷’ 신지에 단독선두

LPGA 인터내셔널 3R 10언더

이 정도면 '지존'의 샷이라고 불릴만 하다. 신지에(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에서 신들린 샷을 날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신지에(2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파파고 골프장(파72·6천71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쓸어담아 6언더파 66타를 몰아쳤다.

사흘 동안 10언더파 206타를 친 신지에(21·하나금융)가 카리 웹(호주·이상 9언더파 207타)을 1타차로 따돌리고 지난 8

일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이후 시즌 두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신지에(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에서 신들린 샷을 날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밖에 지은희(23·힐라코리아)가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치며 5위에 올랐고 브라질교포 안젤라 박(21·LG전자)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다.

한편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2타를 잃으면서 공동 61위(7오버파 223타)에 그쳤고 작년 대회 우승자 오조아(멕시코)는 공동 19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신지에가 2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파파고 골프장에서 열린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 3라운드 18번홀에서 마지막 버디퍼트를 성공한 후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흥국생명 챔피언십 “GS칼텍스 나와”



김연경 맹활약...KT&G에 2연승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두고 챔피언십결선에 진출해 올해 챔피언결전전도 지난 시즌과 같이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패권을 다투게 됐다.

흥국생명은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쌍포' 김연경(23득점)과 카리나(22득점)를 앞세워 KT&G에 세트스코어 3-1(16-25 25-22 25-13 25-18)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흥국생명은 3전2선승제 플레이오프에서 첫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모두 챔피언결전에 직행할 기록을 그대로 이어갔다.

흥국생명의 열쇠는 역시 김연경이 쥐고 있었다. 첫 경기에서 1, 2세트 부진하다 나머지 세트에서 대폭발하며 40점을 올리며 승리의 일등공인이 된 김연경은 이날도 1, 2세트 부진하다 3세트에 완전히 제 컨디션을 찾았다.

속칭 '몸이 풀렸다'라는 말이 정확했다. 공격성공률이 무려 83%에 달했다. 블로킹 1개와 후위공격 등을 포함해 6점을 올렸다. 1, 2세트 7개였던 범실은 2개에 불과했다.

김연경이 살아나자 다른 선수들도 덩달아 힘을 냈다. 카리나와 김혜진도 각각 6점과 4점씩을 보탤었다.

광주은행 이애라 역대 3관왕

‘여자역사’ 이애라(광주은행·사진)가 제20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 대회에서 한국주니어인 기록 4개를 세우면서 3관왕에 올랐다.



이애라는 지난 28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75kg급경기에서 인상 106kg, 용상 131kg, 합계 237kg을 들어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인상 2차 시도 때 103kg을 들어올려 한국주니어인기록(종전 기록 102kg)을 세운 이애라는 이어 3차 시도에서 106kg을 기록, 두번째 신기록을 수립했다. 합계에서도 이애라는 234kg, 237kg을 기록, 232kg의 예전기록을 두번씩이나 갈아치웠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 062) 225-1688 H.010-3565-2888  
 \* 위치: 지산동 법원 버스정류장 앞 \* 무료주차시설 완비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제테크상당 대환영

지역	소재지	면적	층/층수	감평가	최저가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32	19/1	1억400만	7840만
	봉선동 금호타운	31	20/2	1억350만	9450만
	진월동 대림차	25	18/1	5800만	4060만
	봉선동 라인하이츠	26	10/1	6400만	4480만
서구	봉선동 모아	22	10/2	5500만	3850만
	방림동 금일	22	5/3	4000만	3200만
	주월동 호반베르디움	48	15/13	2억7000만	1억8900만
	진월동 한국아파트	37	22/20	2억4000만	1억9200만
북구	봉선동 모아	43	16/1	1억7000만	1억1900만
	금호동 일신	32	16/16	9700만	6800만
	봉선동 부건빌딩	31	19/16	1억3500만	9450만
	내당동 주공	18	18/12	8500만	4550만
중구	지평동 금호대우	24	20/16	8800만	6160만
	지평동 금호3차	49	16/14	1억7000만	1억1900만
	지평동 대우캐슬	32	20/1	1억2000만	7880만
	지평동 리키캐슬	27	10/1	8000만	4200만
동구	금호동 동원리츠	34	19/15	1억5500만	1억8000만
	금호동 SK부	86	15/5	4억5000만	3억1500만
	금호동 대우파크빌	25	21/2	1억1500만	6720만
	금호동 협곡	27	8/7	8500만	5850만
서구	문암동 미라보	33	20/11	9000만	6300만
	일곡동 쌍둥	37	19/14	1억4000만	9800만
	문암동 대우차	31	15/3	1억8200만	1억2700만
	연제동 현대	61	20/16	1억6500만	1억8000만
북구	문암동 대우차	31	11/7	8500만	5850만
	문암동 대우2차	24	15/8	5200만	3840만
	일곡동 현대아파트	57	18/4	2억1000만	1억4700만
	일곡동 박산	31	21/2	1억1500만	8000만
북구	동림동 푸른3단지	24	20/19	7000만	4900만
	우산동 현대	55	15/9	1억8000만	8960만
	문암동 삼호	32	15/14	8000만	5600만
	용봉동 아이파크	57	22/3	3억2000만	1억78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북구	양산동 (양산지구주상권) 대지	152	4억8400만	3억4600만	
	신월동 (GS8차주상권) 대지	156	1억3400만	8400만	
	동호동 (본촌마을부근) 대지	12000	1억2700만	5880만	
	양평동 (해운도리부근) 대지	278	2억8500만	8500만	
남구	남원동 월정리	는	960	1억400만	7330만
	남원동 월정리	밭	1112	1억8800만	1억1700만
	신서면 석마리	는	833	2900만	2000만
	반남면 성거리	는	817	2300만	1800만
북구	황곡면 죽전리	는	875	3200만	2230만
	황곡면 행천리	는	1081	4000만	2780만
	다시면 가운리(관리지역)	는	1756	1억6600만	1억9000만
	봉황면 장성리	밭	252	1800만	1100만
서구	세지면 대신리	는	1186	4310만	3000만
	현천면 정리	임야	6720	2200만	990만
	남원동 내리	는	820	3500만	2500만
	송암면 죽전리	는	408	1200만	88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북구	양산동 (양산지구주상권) 대지	128/314	4	7억2000만	3억2200만
	중호동 (본촌마을부근) 대지	120/403	6	13억	7억2700만
	현천면 정리(금호리주상권)	1092/898	6	17억4500만	4억
	송암면 정리(양평리주상권)	528/380	4	7억2300만	1억2100만

지역	소재지	면적	층	감평가	최저가
북구	문암동 (문암초교부근)	45/51	1억1800만	6500만	2층상가주택
	용봉동 (대우본관역사지구)	32/119	8억1000만	4억6300만	피자전문
	신원동(7부근)	80/97	3억8300만	1억7200만	3층상가
	백운동(백산아파트상가)	38/46	1억2600만	4500만	아파트상가
남구	지석동 (대원초교부근)	151/213	5억1500만	2억2600만	2층(약도)상가
	일신동(한양병원부근)	124/37	10억8500만	4억8600만	5층(약도)상가
	서구 내당동(푸른단지부근)	165/338	12억5000만	8억7500만	5층(약도)상가
	동구 개천동(구시상가부근)	100/221	6억6300만	4억6400만	4층(약도)상가

[주]한국경매는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매매가1억2천만원  
 ▶ 삼암지역 130P 삼각동  
 ▶ 공시지가+건물과표13억매매가7억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 북구 대 220P 건 400P  
 ▶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 한의원 내과 직접  
 ▶ 공시지가+건물과표6억매매가3억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삼암지역  
 ▶ 대 100p 건 300p 삼암지역  
 ▶ 상점지역약95p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  
 ▶ 30m 도로 접  
 ▶ 감평가3억8천매매가2억  
 ▶ 장선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층  
 ▶ 2층 사무실  
 ▶ 32억 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 보 8억원 월2350만원 용 13억포함  
 ▶ 감평가46억매매가24억  
 ▶ 빌딩급매 대지500p 건평1000p 지하1층, 지상5층  
 ▶ 전세공실  
 ▶ 화순주유소급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동자 6억포함  
 ▶ 화순,정리,요양원,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장성일야사습득장,별장  
 ▶ 100000p 4억7천

☎(대) 062)531-4665  
 상 담 062)515-0030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번영 공인중개사**

**모텔**

전문업종  
 신축모텔, 구모텔  
 무인모텔, 사우나  
 고시텔, 원룸  
 독서실, 펜션  
 전문컨설팅  
 부지, 설계, 허가  
 시공, 건설, 리모델링  
 시설, 비품, 영업상담  
 임대물건, 임차인  
 매도물건, 매수인  
 ★24시간접수상담★  
 ☎(대) 062)531-4665  
 상 담 062)515-0030  
 동림2지구동림병원앞